

남해군, '독일마을 국제이벤트' 온라인 지역축제 대상

등록 2022.02.14 09:00:57



[남해=뉴스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주최한 '독일마을 국제이벤트'가 온라인 지역축제 대상을 차지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K-문화융합협회 주관으로 열린 우수 온라인 지역축제 시상식에서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온라인 국제이벤트로 개최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온라인 지역축제 대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지역축제가 대거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축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과 단체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주최한 독일마을 국제이벤트는 코로나19 이후 축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K-문화융합협회는 2021년에 추진된 전국의 온라인 축제 80여개를 전수 조사하고 관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남해 독일마을 국제이벤트와 서울 금천 과학 페스티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취소된 지역축제를 메타버스 등 온라인 콘텐츠로 재조명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급변하는 관광시장과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관광문화재단으로, 지역 온라인 축제의 선진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K-문화융합협회는 1979년 '문학과 언어 연구회'라는 학회 창립으로 시작돼 2011년 한국문화융합학회로 개칭한 후, 한국문화의 계승발전은 물론 융합과 확산을 위해 약 40년간 이어져 온 연구자들의 모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